한국 의료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및 출판 기념회

◇ 일 시 : 2000년 4월 12일(수)

◇ 장 소 :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 회의」
보건의료 분과위원회

◆ 후 원 : 한국의학철학연구회/ 의료개혁시민연합
소나무 출판사

프 로 그 램

제1부: 학술 토론회 (16:30 - 19:00)

◆ 기조 발제 : 한국 의료의 새로운 좌표

발제자: 맹광호 (가톨릭대, 예방의학)

◆ 발표 및 패널 토의: 한국 의료 대논쟁

사회: 서정돈(성균관의대 학장)

◇ 발표: 이용수(한림대,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 패널 토의: 이덕승(의료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선희(이화여대, 예방의학)/
이왕준(청년의사, 편집인)/조병희(계명대, 의료사회학)/
최서영(하나한방병원장)/최종덕(상지대, 자연철학)

◇ 종합토론

제2부: 『한국 의료 대논쟁』 출판 기념회 (19:00 - 21:00)

사회: 박석준(동의과학연구소장)

◇ 발간사: 권상옥(한국의학철학연구회 · 연세대)
◇ 축 사: 이준상(국립보건원장)
◇ 저녁 식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의료현실 - 일상언어담론을 통해서

최종덕(상지대, 철학)

<논쟁의 원칙> (1)수혜자 중심주의 (2)공공성의 원리 (3)일상적 권력주의 배제원칙

<논쟁의 현실>

1.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분명하게 밥그릇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오히려 밥그릇 싸움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리적인 밥그릇 나누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문제해결의 길이다. -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불려왔던 지난 몇 년 동안의 (한)의/약사 집단행동은 이기주의라는 오명보다는 집단 압력단체의 성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 과학적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엇이 과연 과학적이며, 기계가 아닌 인간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모두 과학적인 것으로 포괄될 수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며, 전통 동양의학임을 주장하는 쪽은 과연 동양사상에 대한 문화사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3. 약국에서 간단한 약에 대한 임의제조를 하거나 담배를 팔 수 있다면, 박카스를 일반슈퍼에서 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한방이 비과학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과학공부를 한 약사는 아예 한약을 다루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문이다.

4. 의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불신에 대하여 의사들은 (최근 공공매체에서 논쟁의 당사자로 나온 의사의 말이지만 많은 의사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본다.) 의사들에 대한 오래된 선입관과 편견의 결과일 뿐, 실상에서는 의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사들의 표현은 일반인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들의 장기간 교육기간에 따른 기대수익에 대한 기득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춰진다.

5. 동학개념이 서학개념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듯이, 의료시장체제 후발자인 한의사들도 양의사에게 갖는 일반인의 불신원인들을 너무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6.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일반질병에 대한 비타민 유용론이 별 근거 없다는 미국 과학아카데미의 발표를 읽었다.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타민이 그럴진대 불소문제는 더욱 과학적 근거를 보장받을 수 없다. 특정 공공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포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풀어서 말한 것이다.

7. 또 다른 오늘 신문기사로서 직장의보가 진료비 의탁거부를 하여, 의(병)원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읽었다. 지역/직장 의보공단의 공공적인 *진짜* 내부개혁을 통하여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만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과 상관적이라고 본다.

<방향>

오늘 나온 한국의료대논쟁의 한 꼭지를 청탁 받아 나름대로는 의료계에 대하여 강한 비판적 시각으로 원고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쓰는 도중에 너무 좋은 많은 (양/한)의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 자연히 비판적 필력이 무디어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의학철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만난 의사들과 연관된 분들이었다. 결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의료논쟁의 주체인 의사가 기술인(technical expert)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에 대한 공부(human artist)를 지향할 때 논쟁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추후 반론 통신연결> jdchoi@mail.sangji.ac.kr